

# 문재인 정부서도 수도권 쏠림...균형발전 '헛구호'

###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도착금액 172억 달러 중 83% 집중 기업부설 연구개발센터·벤처투자 일자리 창출도 편중 심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에 편중되고, 기업부설 연구개발센터와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낸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라며,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민주당 여의도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지역별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착금액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172억 5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83%인 143억 4700만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은 17%에 해당하는 28억 5600만 달러가 유치됐다.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전북, 경남은 전체 유치 금액의 0~1%대의 비중이 그쳤다. 서울시가 77억9900만 달러 유치했을 때 광주시는 600만 달러, 전남도는 1억500만 달러를 유치한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유치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투자 여건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등 지원이 없는 탓에 지방이 더욱 낙후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도착금액 비중이 수도권은 62%였는데 점차 높아져 지난해에는 83%로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8%였던 투자유치 비중이 지난해 17%까지 낮아졌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 부설 연구소(R&D 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연구소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연구소는 4만929개이며, 종사하는 연구원은

34만17명이다. 수도권에는 연구소가 2만6463개이고 여기에 24만1495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수도권의 연구소 비중은 64.8%이고 연구원 비중은 71.0%를 차지한다. 연구원 비중이 연구소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수도권에 대형 연구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연구소 비중은 감소하고 연구원 비중은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연구소 비중은 2017년 65.7%, 2018년 64.8%, 2019년 8월 6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

해, 연구원 비중은 2017년 70.6%, 2018년 70.8%, 2019년 8월 7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대형 연구소들이 추가로 설립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대형 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 성과는 총 2118명, 12.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중 1921명, 90%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



'가이 포크스' 마스크 시위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첫날인 5일 홍콩 위엔룽 지역에서 반정부 시민들이 '가이 포크스'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하남지구에 291억 들어 4층 규모 시립도서관 건립 2020년 착공 2023년 개관

오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하남 시립도서관은 광산구 하남동 641번지 일원에 전체 면적 72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며 구·시비 등 29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 북카페 등을 갖춘다. 열람실은 자료 이용 부분과 문화교육 부분을 포함해 모두 738석에 장서량은 23만 7400권에 이른다.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하고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이르면 그해 말 착공,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주변에는 반경 1km 이내에 10개 단지 6600여 세대, 1~2km에 14개 단지 1만2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현재 광주에는 시립도서관 3개와 광주시교육청 운영 도서관 6개를 포함해 모두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광주시는 2017년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에 따라 하남과 상무소각장(대표도서관)을 추진했다.

서구 상무 상무소각장 건물의 도서관 세부 계획은 현재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생활SOC 16개 사업 국비 494억 확보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사업 기대

광주시가 정부에서 내년부터 3년 간 지원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 1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9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고, 신청한 16개 사업이 전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시민 생활밀착형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로, 대표적으로는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의미한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났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건립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한다.

지자체의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및 건립비 절감 등을 위해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

으로 지난 7월 신청을 받아 8~10월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광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건립(시, 광산구)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건립(시, 광산구)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동구) ▲가족센터 건립(동구)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동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서구)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남구)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남구)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 건립(남구)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남구)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남구)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북구)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북구)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북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광산구) 등 총 16곳이다.

선정된 16개 복합화 사업 속에는 수영장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노인시설, 장애인회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들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유치 속도낸다

산림자원연구소-4개 연구기관 협약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4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유치를 위해 주요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산림자원연구소와 천연자원연구센터, 식품산업연구소, 한국한약의약진흥원, 전남 4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난대수종 등 산림바이오 소재에 대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원물 공급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임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이다. 산림청에서 2020년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 기술센터,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은 황철, 동백, 비자 등 난대수종과 임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임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수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임산물의 2차 가공과 제품 개발 및 유통 인프라 부족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여건이어서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태풍 '미탁' 피해 전남지역 특별교부세 4억 지원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경북(이상 각 15억원), 부산(8억원), 전남, 경남, 제주(이상 각 4억원) 등 6곳이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태풍피해가 심했던 6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잠정 집계 따르면 태풍 '미탁'으로 1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910세대 1442명으로, 이 중 529세대 831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피해는 민간시설 3468건, 공공시설 1114건 등 모두 4582건으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 K-POP CONCERT

2019 SBS

2019 in Geongeup

## 2019. 10. 12 (토) - 13 (일) 19:00

### 정읍시 종합 경기장

**SBS 두시탈출 컬투쇼**

10.12 (토) 19:00

MC | 김태균, 전소미  
아스트로 · 제시 · 다이아 · 에일리  
모모랜드 · 매드클라운  
동키즈 · 송유빈, 김국현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10.13 (일) 19:00

MC | 나르샤, 박성광(개그맨)  
데이브레이크 · 딕펄스 · 라붐  
공원소녀 · SF9 · 체리블렛  
슬리피(베이식) · 앤시아 · KCM

※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대권 배부 : 10월 4일(금)부터 선착순배부(1인2매)  
 ※ 배부처 : 정읍시 읍면동사무소, SBS / 관람문의 : 정읍시청(063-539-6883)  
 ※ 초대권 소지자 선착순 입장